구연발표 I-2

전(全)복강경하 원위부위절제술의 초기 경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김진조, 송교영, 진형민, 김 욱, 전해명, 박조현, 박승만, 임근우, 박우배, 김승남

(목적) 최근 국내에서는 조기위암환자를 대상으로 위암 수술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복강경보조하 원위부위절제술 (Laproscopy-assisted distal gastrectomy)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복강경하 원위부위절제술 (Totally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의 경우 수술의 최소침습성이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강 내에서 위장관 문합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별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복강경용 선형 자동문합기 (Endocutter 45 mm; Ethicon Endosurgery, OH, USA)만을 이용한 비교적 간편한 위십이지장 복강 내 문합술을 통해 시행한 전복강경하 원위부위절제술의 초기 경험을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6월부터 9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모자애병원 외과에서 전복강경하 원위부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8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임상병리학적인 특징과 수술 후 결과를 조사하였다. 위십이지장 복강 내 문합에는 복강경용 선형 자동문합기를 이용한 델타형 문합 (Delta- shaped anastomo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결과) 남자가 6명 여자가 2명이었으며, 평균 수술 시간은 369.4±62.5분 (275분~465분)이었고, 문합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45.1±14.4분 (32분~70분)이었으며, 증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이 점차 단축되었다. 문합에 사용한 복강경용 선형 자동문합기의 수는 평균 7.1±0.6개였다. 평균 림프절 획득 개수는 31.9±13.1개였으며, 수혈은 1예에서 시행하였고, 개복 수술로 전환한 예는 없었다. 수술 후 가스 배출은 평균 2.8±0.5일에 되었고, 첫 유동식 섭취는 평균 4.1±0.8일부터 시행하였다.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고, 수술 후 평균 재원 기간은 10.3±4.1일이었다.
(결론) 델타형 문합 방법을 이용한 전복강경하 원위부위절제술은 기술적으로 용이하였고, 조기위암환자에서 복강경 수술의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소침습수술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Key Words: 위암, 델타형 문합, 전복강경하 원위부위절제술